

국내 항공우주산업 96실적과 전망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이사 김 영 갑

1996년 항공우주산업은 매출액 기준 31.4%의 고 성장을 기록하고 투자액도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산업이 활기를 띠었다. 1997년에는 매출액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액은 오히려 18.4%나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10개 회사의 경영 실적을 조사하고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한 것이다.



1996년 매출액
8,974억원
전년 대비
31.4%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총 매출액은 8,974억원으로 1995년 매출액 6,752억원에 비해 31.4% 신장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이는 지난 4년간 (1992-1995) 연평균 증가율 13.4%보다 18%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KFP, UH-60 사업의 순조로운 생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우주 부문 매출액은 13억원으로 미미한 실정이며 그나마 전년 대비 48%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무궁화위성 사업의 후속 사업이 단절된 상태에 있고 현재 추진중인 다목적실용위성 사업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목적실용

위성의 실제작이 시작되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97년에는 총 1조2,023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 항공사상 처음으로 1조원 돌파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고정익 대 회전익 매출비율 9:1
고정익 비중 2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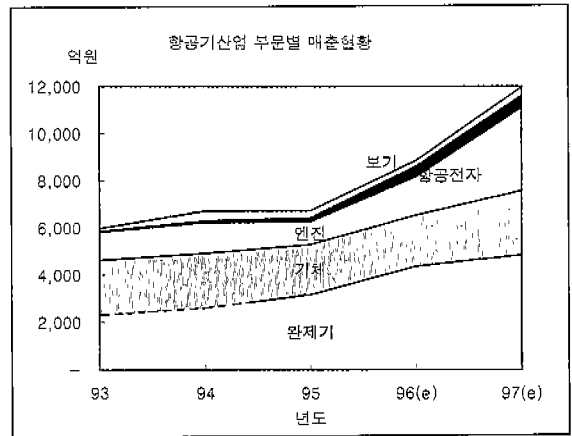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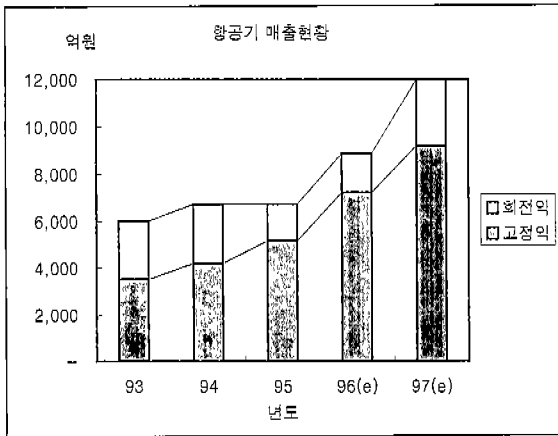
부문별로는 고정익이 7,212억원(39.6%증가), 회전익이 1,649억원(5.6%증가)의 매출 실적을 보였다. 고정익대 회전익 비중은 1995년 7:3에서 9:1로 고정익

국내 항공우주산업 매출현황 (단위:억원,%)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e)	97년(e)
항공	6,003	6,324	6,727	8,860	11,973
우주	33	23	25	13	50
계	6,036	6,347	6,752	8,874	12,023

분야별 항공기산업 매출현황 (단위:억원)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e)	97년(e)
고정익	3,514	4,201	5,167	7,212	9,189
회전익	2,489	2,523	1,561	1,649	2,784
계	6,003	6,724	6,727	8,860	11,973
비율	6:4	6:4	7:3	9:1	



비중이 20%나 증가했다. 매출액 중에서 완제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9%로 1995년보다 2% 증가했는데 KFP, UH-60사업등 군수부문의 증가와 정비물량의 증가가 그 요인이다. 부품은 기체, 엔진, 항공전자, 보기의 점유비가 각각 24%, 19%, 5%, 3%로 나타나 전년 대비 기체와 항공전자의 비중이 낮아진 데

신 엔진 비중이 약간 올라간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진부문의 급격한 증가는 KFP에 장착될 T100엔진의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97년에는 고정익이 9,189억원(27.4%증가), 회전익이 2,784억원(68.8%증가) 총 1조1,973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 고정익 성장율이 낮아진 대신 회전익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완제기 매출액이 4,849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여 1996년보다 점유율이 9% 내려간 대신 엔진이 3,537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점하는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그외에 기체, 항공전자, 보기의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각각 23%, 4%, 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e)	97년(e)
완제기	N/A	N/A	3,173 47%	4,371 49%	4,849 40%
기체	2,819 68%	2,920 62%	2,115 31%	2,163 24%	2,720 23%
엔진	1,204 29%	1,305 28%	978 15%	1,640 19%	3,537 30%
항공전자	32 1%	72 2%	155 2%	443 5%	502 4%
보기	108 3%	422 9%	302 4%	241 3%	359 3%
소재	4 0%	5 0%	4 0%	2 0%	7 0%
계	4,167	4,724	6,727	8,860	11,973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e)	97년(e)
위성체부분품	17	3	13	-	0
발사체부분품	4	14	12	5	44
지상설비부분품	4	6	-	9	6
계	25	23	25	13	50

투자액 91% 증가했으나 금년에는 18.4%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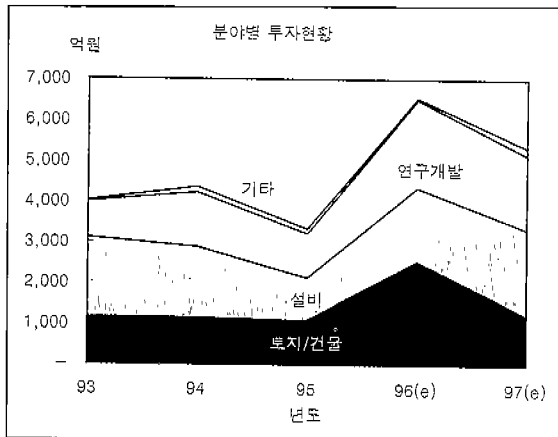
지난해 항공우주산업 투자액은 항

특집

구분	93누계	94년	95년	96년(e)	97년(e)
항공	13,552	4,252	3,342	6,428	5,154
우주	34	118	84	116	188
계	13,586	4,370	3,426	6,545	5,342

구분	93누계	94년	95년	96년(e)	97년(e)
토지/건물	4,059	1,131	1,076	2,531	1,212
설비	5,569	1,752	1,048	1,824	2,127
연구개발	3,820	1,350	1,097	2,146	1,820
기타	138	137	120	44	184
계	13,586	4,370	3,341	6,545	5,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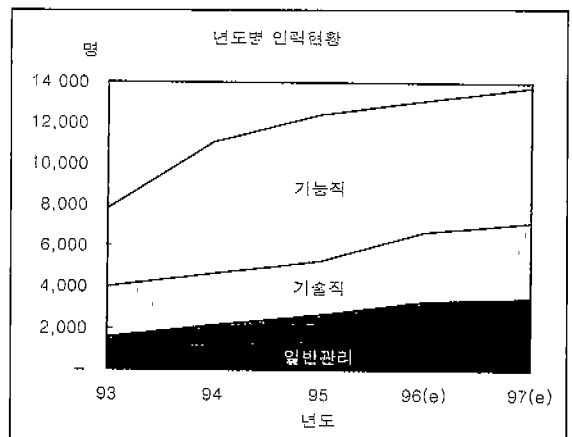
공기분야 6,428억원, 우주분야 116억원 총 6,545억원으로 전년대비 9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토지/건물이 2,531억원(38.7%)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2,146억원(32.8%), 설비 1,824억원(27.9%), 기타 44억원(0.7%)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토지/건물과 연구개발에 투자가 증가했는데 이는 현대 우주항공의 서산공장착공과 중형항공기 설계 및 연구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997년 투자계획은 1996년 대비 18.4% 감소한 5,342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설비투자가 2,127억원으로 전년비 16.6% 증가한 반면 토지/건물(1,212억원)과 연구개발(1,820억원) 투자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규모는 항공기분야 12,129명, 우주분야 991명 총 13,120명으로 전년 대비 696명(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신장의 주요인이었던 KFP사업으로 인해 종업원의 수가 늘어난 것인데 분야별로는 기능직 인력이 6,437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직이 25.8%로 3,380명에 이르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인력이 740명 줄어든 반면 학사, 석사, 박사가 각각 4,497명, 799명, 171명으로 대졸 이상이 2,177명이나 증가해 고학력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생산기동을 하향추세... 대책마련 시급

종합해 보면 1996년에는 KFP사업의 본격화로 고정익과 엔진 생산액이 급성장 추세를 보였고 투자도 중형항공기 사업을 대비한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Bell427, Sokol헬기 공동생산 등 여러프로젝트가 발표되기도 하였고 우주 부문도 다



목적실용위성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투자가 늘고 있으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MD-95 사업을 추진 중인 현대우주항공의 생산공장 설립으로 토지, 건물 투자액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중형항공기, KTX-II 등 대형 국책사업의 지연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1997년도 투자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FP, UH-60 등 군수사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은 향후 2,3년간은 변동사항이 없는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나 군수부분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99년 이후에는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이 중형항공기 KTX-II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KFP와 UH-60 사업종료 시점과의 시기적인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라인의 유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매출면에서는 증가추세로 보이나 생산라인 가동률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형기 대안사업과 KTX-II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생산중인 KFP, UH-60의 추가생산 등 생산라인의 연속적인 가동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현황 (단위:명)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e)	97년(e)
항공	7,331	10,486	11,683	12,129	12,777
우주	477	584	741	991	1,005
계	7,808	11,070	12,424	13,120	13,782

분야별 인력현황 (단위:명)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e)	97년(e)
일반관리	906	1,144	1,315	1,532	1,603
연구개발	670	1,023	1,356	1,771	1,854
기술직	2,408	2,469	2,591	3,380	3,707
기능직	3,824	6,434	7,162	6,437	6,618
계	7,808	11,070	12,424	13,120	13,782

학력별 인력현황 (단위:명)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e)	97년(e)
박사	58	103	135	171	177
석사	253	438	582	799	865
학사	2,928	2,779	3,073	4,997	5,370
기타	4,092	7,166	7,893	7,153	7,370
계	7,331	10,486	11,683	13,120	13,782

참 고

- 매출액
 - 완제기 : 항공기 인도액에서 기체, 엔진 등 부품가격을 제외한 금액(창정비 매출액 포함)
 - 엔진 : 창정비 매출액 포함
- 종업원
 - 항공기 정비인력 포함
- 96년(e)수치는 10대기업중심의 조사이므로 전체수치와 약간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음.
- 97년(e)수치는 올해 예상치를 말함.